

'2017 MMA', 엑소X방탄X아이유...모두 주인공이었다



꿈처럼 찬란했던 '2017 MMA'가 성대한 막을 내렸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국내 대표 가요 시상식인 만큼 공연도, 출연자, 팬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200여분간의 공연시간 내내 팬과 아티스트, 그리고 시청자 모두 '주인공'이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

역대 최대 규모 개최된 국내 대표 가요 시상식 공연·출연자·팬들의 관심 어느 때보다 강력

스카이돔에서 '2017 멜론뮤직어워드(이하 2017 MMA)'가 개최됐다. 이날 '2017 MMA'에서 수상의 영광을 얻은 아티스트는 총 20팀이다. 특히 수상한 아티스트들의 주변을 행기는 따뜻한 마음이 돋보이는 수상소감이 눈길을 끌며 흥분함을 더했으며, 팬들과 아티스트가 하나된 감동의 순간도 연출됐다. '2017 MMA' 대상 3개 부문은 아티스트상 엑소, 앨범상 아이유, 베스트송상 방탄소년단이 각각 수상했다. 2015년부터 3년째 대상을 수상한 엑소는 대상인 아티스트상과 함께 네티즌인기상, 뮤직스타일상 남자댄스부문, Top10 등 4개 부문 상을 휩쓸었다. 수상의 영광을 팬들에게 돌리며,

앞으로도 함께 하지는 약속을 한 엑소는 이날 'Ko Ko Bop', 'Forever', '전야' 등의 무대로 고척돔을 뒤흔들었다. 전세계 팬들의 시선을 강탈하며 K-POP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5년만에 부활한 글로벌 아티스트상을 품에 안으며 히트곡 'DNA'와 'You Never Walk' 등의 무대를 통해 또 한 번 전세계 팬들을 열광시켰다. 신인상과 카카오톡스타상, Top10을 수상한 워너원은 '청춘, 제 1막'이라는 주제로 꾸민 공연 마지막 곡인 '활활'에서 불에 타는 듯한 무대 효과와 함께 등장해 공연의 열기를 더했다. 큰 감동을 자아낸 무대로는 이번 시상식의 주제인 '음악, 꿈을 두드

리다(Music, Awake Your Dream)'에 걸맞은 무대를 선사한 아이유가 꼽혔다. 미래의 스타를 꿈꾸는 가수 지방생들과 함께한 합동 무대 '이름에게'는 현장을 찾은 관객뿐만 아니라 생중계로 공연을 지켜본 많은 이들에게 큰 희망을 전달했다. 또한 오직 오늘날을 위해 각자의 무대를 준비한 아티스트들은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공식 음원 발매에 앞서 최초 공개된 현아의 신곡 'LIP & HIP' 무대에 서는 섹시 카리스마가 장내를 가득 채우며 눈을 땔 수 없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그리고 탭댄스를 선보이며 레드와 화이트의 조화로 한편의 뮤지컬과 같은 무대를 만든 여자친구, 멤버들 간 완벽한 호흡과 칸칸무를 멋지게 소화해낸 JBJ의 공연은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무한도전'이기에 가능한 꼬리물기

'무한도전'이 기발하고 신랄방탕한 특징 꼬리물기로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다. 한강 종주로 체력을 탈탈 소진하며 큰 웃음을 켜던 멤버들은 수능 시험으로 또 어떤 스펙터클한 상황들을 만들어낼지, 제작진의 비박처가 드러난 흥미진진한 방송이 시청자들을 들쭉이게 했다. 이어 공개된 예고편이 12.1%(닐슨 수도권 기준)로 최고 시청률까지 기록하며 다음 주 방송을 더욱 기대하게 했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리얼버라이어티쇼 '무한도전' 547회는 멤버들이 '뱀목 한강 종주'에 도전하는 모습과 함께 수능 특집이 펼쳐졌다. 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무한도전'은 수도권 기준 9.9%, 전국 기준 9.0%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한편, 주요 광고주들의 지포가 되는 2049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부분은 다음주 예고편으로 수도권 기준 12.1%의 높은 시청률

을 기록했다. 멤버들은 방송제개를 공식적으로 알린 첫 촬영 날 제작진의 안내와 함께 한강 망원지구에 도착했다. 촬영을 도와줄 조세호의 등장과 함께 첫 영하권에 진입한 매서운 추위 속에 멤버들의 눈 앞에 등장한 것은 다름 아닌 업그레이드된 '뱀목'이었다. 멤버들이 노를 저어야 갈 수 있는 무동력 뱀목은 지난 뱀목 특집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업그레이드됐다. 뱀목 한 톨까지 잡았다 필수 있었으며 뱀목의 사이즈도 훨씬 컸다. 그 밖에 멤버들의 생리현상을 해결할 화장실까지 구비된 이른바 '뱀목 2.0'과 멤버들의 한강 종주를 증계할 드론 및 카메라들까지 등장, 멤버들이 한강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20km 구간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됐다. 역시나 멤버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서울의 랜드마크와 15개의



다리를 지나게 될 멤버들은 시작부터 몸과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첫 스타트 지점에서 40분 간을 제자리에서 움직였다. 이미 수차례 특집을 통해 훈련 받았던 거꾸로 앉는 노 저는 방법을 뒤늦게 깨달은 멤버들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하며 빅 웃음을 선사했다. 그 중에서도 배고픔에 시달리던

멤버들은 백명수의 기지 발휘로 한강에서 중국집 음식 폭풍 먹방을 선사해 놀라움을 안겼다. 멤버들은 제작진이 드론으로 던진 전단지 봉지 속에서 이득거리를 계산해 내 여의도 지역 배달음식 전문점을 찾았는 데 백명수가 이때 '여의도는 789'라며 전화번호 길리잡이를 톡톡히 해낸 것. 그렇게 육지와 접안에 성공해 배달원과 만난 멤버들은 폭풍

먹방을 선보였고 거세지는 바람 속에 몸을 밀치고 다시 한강 종주에 도전했다. 이 밖에도 노를 젓는 과정에서 조세호는 지꾸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빌러던 누우며 원치 않는 적발남이 돼 'V라인'을 만들어 배꼽을 잡게 했고, 하하는 뱀목의 첫 화장실 사용자가 되며 괴물 보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같은 카메라와 드론에 둘러싸여 큰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멤버들의 열의와 달리 고요한 한강이 멤버들의 발목을 잡았다. 온 만큼 10km를 더 가야하는 상황에서 바람이 불지 않았고 같은 자리를 반복하다 어두워져 결국 선택을 하게 된 것. 제작진은 요지부동하는 뱀목 위에 앉아 있는 멤버들에게 수능 50% 이상 맞히기 미션에 도전할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멤버들은 뱀목을 덮석 몰았다. "새로운 도전에 실패했을 경우 별책이 있다"는 제작진은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북상전설 파쿠아오와의 스파링 대결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렸지만 체력과 영혼이 탈탈 털린 멤버들은 수능 시험에

도전하기로 한 것. 한강 종주로 시작된 특집이 파쿠아오와의 스파링 대결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그렇게 수능 당일 오후 수능 특집이 진행될 모습이 공개됐고 멤버들은 다양한 부류의 수험생으로 등장했다. 삼삼오오 모인 멤버들은 죽는 소리를 했지만 생각보다 여유로웠던 상황. 하지만 '낙제생'의 경우 파쿠아오와 면담을 하게 된다는 자막이 공개되면서 멤버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지, 어떤 식으로 미션이 진행될 지 큰 공명음을 낳았다. 무엇보다 이날 방송은 다시 돌아온 '무한도전'이 이처럼 이슈와 스토리를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본격적인 방송을 기대하게 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무동력 뱀목에 파쿠아오를 실은 제작진이다. 진짜 대박", "파쿠아오와 스파링 할 사람 분명 있었다. 나도 수능 50% 못 맞출 듯", "뱀목으로 가다 중국집 배달 시켜먹을 때 진짜 대박이었다", "뱀목이 이렇게 수능으로 수능이 파쿠아오로 이어지다니 대단하다", "다음 주 기대~" 등 호응을 보였다.

단막극도 tvN이 만들면 다르다



tvN 단막극 '드라마 스테이지' 중 '박대리의 은밀한 사생활' (극본 최지훈/연출 윤성호)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일 '드라마 스테이지'의 첫 타자로 나선 '박대리의 은밀한 사생활' (이하 '박대리')이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신제작의 신선한 스토리와 윤성호 감독 특유의 유티트 있는 감각적인 연출, 그리고 주연을 맡은 이주승과 김예원

을 비롯한 총무가 주목하는 신예 배우들의 열연이 안방극장을 제대로 사로잡은 것. 이날 방송에서는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밤에는 작가로 변신하는 건설회사 모태솔로 박대리의 이중생활이 그려졌다. 전혀 다른 낮과 밤을 사는 박대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시대의 젊은이들의 애환과 사랑을 현실감 있게 표현해 tvN 단막극 '드라마 스테이지'의 성공적인 첫 단추를 끼웠다. 시청자들 역시 "단막극에서도 tvN스러운 감성이 묻어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IMF 직후 대기업에 취업해 간신히 대리를 단 박종혁(이주승 분)은

현실에서는 짝사랑하는 동료 이유린(조수향 분)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걸지 못하는 모태솔로지만, 밤에는 로맨틱한 인터넷 소설(이하 '인소')로 여심을 사로잡는 열광 없는 작가 미리내로 활동하고 있었다. 권위적인 사내 분위기 속 후시라도 부임을 들킬까 싶어 절필을 고민하면서도 이유린이 미리내의 열혈 팬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순정과 면모로 웃음을 안겼다. 유일하게 박대리의 사생활을 아는 출판사 편집장 최보민(김예원 분)은 차기작을 집필하는 대가로 박대리와 이유린을 이어주겠다고, 미리내의 열광을 갈파 공개하기 위해 한 가짜 사인회를 계획해 이유린을

초대했다. 하지만 결혼 예정자가 있던 이유린은 갑작스런 예비 시부모님과 만남으로 불참하게 됐고, 우연히 사인회 소식이 알려져 팬들이 몰리면서 결국 박대리의 이중생활은 회사에도 탄로나다. 대기업 사원과 작가 사이에서 고민하던 박대리는 꿈을 찾아 과감히 사표를 던졌다. 최보민은 그러한 박대리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작품 활동을 돕기로 했다. 이유린 또한 결혼 후 내조에만 힘쓰는 예비 시어른들의 압박과 남성 중심 직장 내 유리천장에 반발, 박대리와 마찬가지로 더 나은 이상을 위해 중국행을 택했다. 미리내의 인소 속 일과 사랑을 모두 쟁취

한 진취적인 여주인공 흥과 장흥은 희 분)처럼 사회 내 다양한 편견에 맞서 신념을 잃지 않는 세 젊은이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한편 '드라마 스테이지'는 신인 작가들의 데뷔 무대라는 의미를 담은 tvN 단막극의 이름이다. CJ E&M의 신인스토리텔러 지원사업인 오픈(OPEN)의 '드라마 스토리텔러 단막극 공모전'에서 선정된 10개 작품들로 구성됐다. '드라마 스테이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현실에 닿아 있는 크고 작은 고민들과 이 시대의 감수성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음력 10월 17일)

<p>▶ 쥐띠 36년생 건강을 챙겨라. 48년생 산행을 삼가라. 60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2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 84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p> <p>▶ 돼지띠 37년생 외출을 삼가라. 49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 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 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p> <p>▶ 양띠 38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 50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 62년생 계약문이 있다. 74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 86년생 꿈을 접지마라.</p> <p>▶ 토끼띠 39년생 미련을 버려라. 51년생 큰 수확을 얻을 것이다. 63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 75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 87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p>	<p>▶ 용띠 40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2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4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6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88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p> <p>▶ 원숭이띠 41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 53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 65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 77년생 기다림을 알아라. 89년생 과한 욕망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p> <p>▶ 말띠 4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54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6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7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9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p> <p>▶ 양띠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9년생 뜻밖의 행운이 온다. 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p>	<p>▶ 닭띠 32년생 부드러움을 잃지마라. 4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 5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 6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 8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p> <p>▶ 돼지띠 33년생 꺼지가 집 주위를 맴돈다. 45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 57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 69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81년생 욕망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p> <p>▶ 개띠 34년생 외출을 삼가라. 46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 58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0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 82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p> <p>▶ 돼지띠 35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7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59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71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3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p>
---	--	--

★ 해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